

INFOGRAPHIC

인포그래픽 vol.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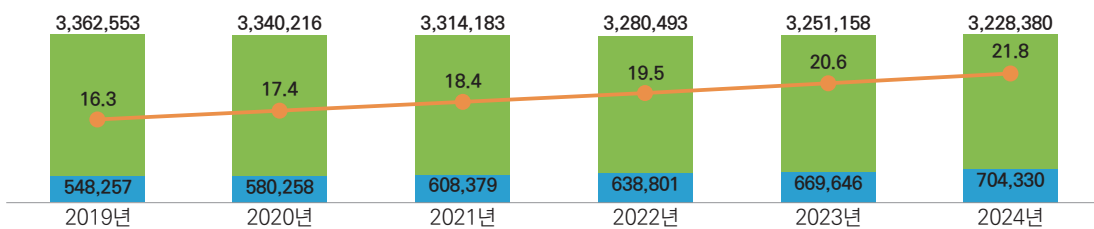
발행일: 2025.1.31. | 발행인: 조철현 | 발행처: (재)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| ISSN 3058-9614

초고령사회, 경상남도 노인 가구유형에 따른 복지 정책 우선 과제

김나현 | 선임연구원(nhkim@gn.pass.or.kr)

I 경상남도 노인인구 비율

- 경남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16.3%에서 2024년 21.8%로 꾸준히 증가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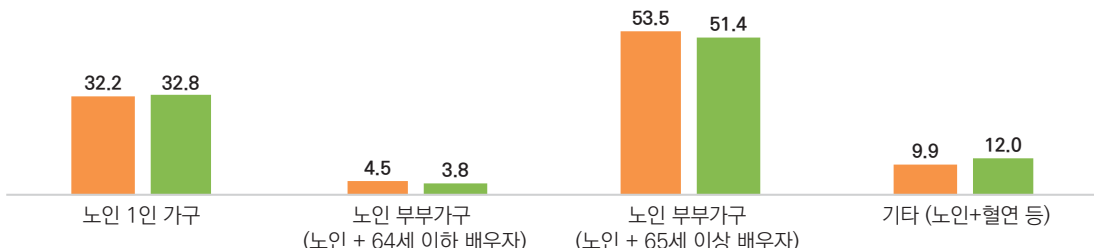


출처 행정안전부, 「주민등록인구현황」

● 전체 인구수(명) ● 65세이상 인구수(명) ● 노인인구 비율(%)

II 경상남도 노인가구 형태

- 노인부부가구(노인과 65세 이상 배우자) 53.5%, 노인 1인가구 32.2%, 기타(노인+혈연 등) 9.9%, 노인부부가구(노인과 64세이하 배우자) 4.5% 순으로 나타남
- 전국과 비교하면 노인부부가구(노인과 65세 이상 배우자)가 2.1% 더 높았으며, 노인부부가구(노인과 64세이하 배우자)가 0.7%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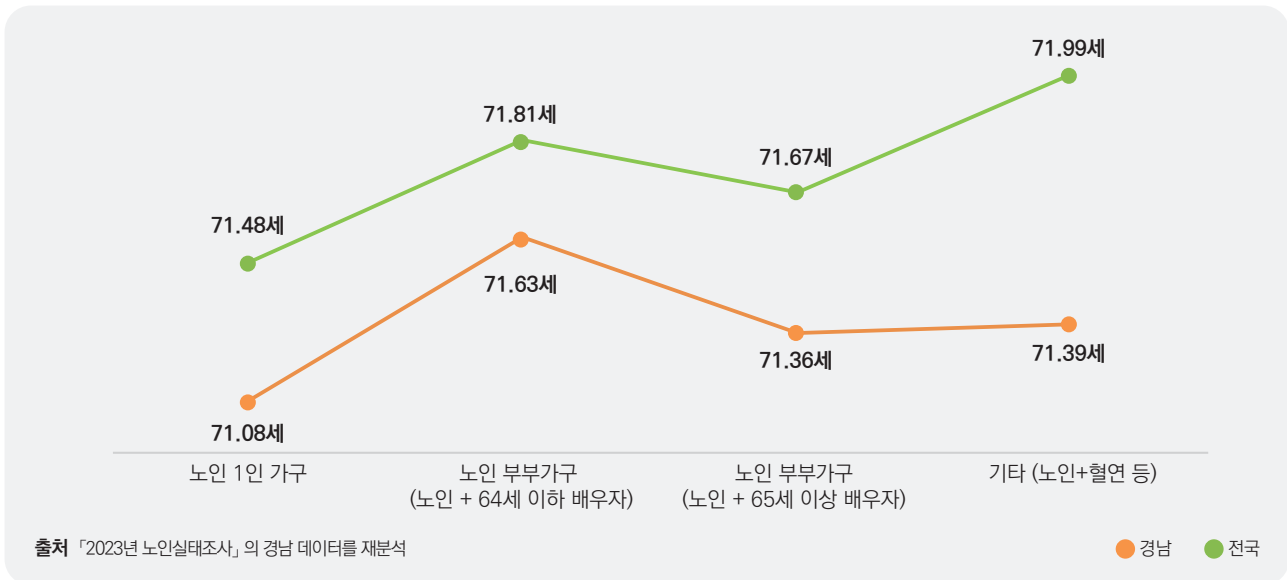


출처 「2023년 노인실태조사」의 경남 데이터를 재분석

● 경남(%) ● 전국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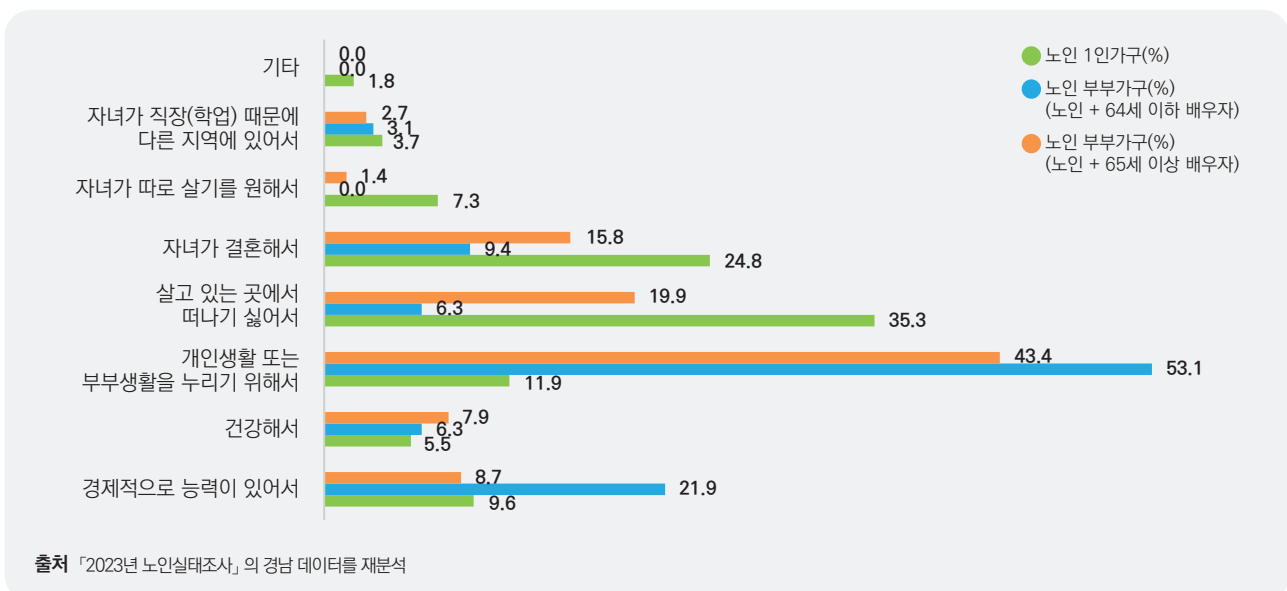
III 가구 유형별 주관적인 노인 연령 기준

-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인의 연령 기준은 노인 1인가구가 71.08세, 노인 부부가구(노인과 65세 이상 배우자) 71.36세, 기타(노인+혈연 등) 71.39세, 노인 부부가구(노인과 64세 이하 배우자) 71.63세 순으로 나타남
- 경남 노인 가구의 주관적 연령 기준 평균은 전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



IV 단독가구(1인가구/노인부부가구) 형성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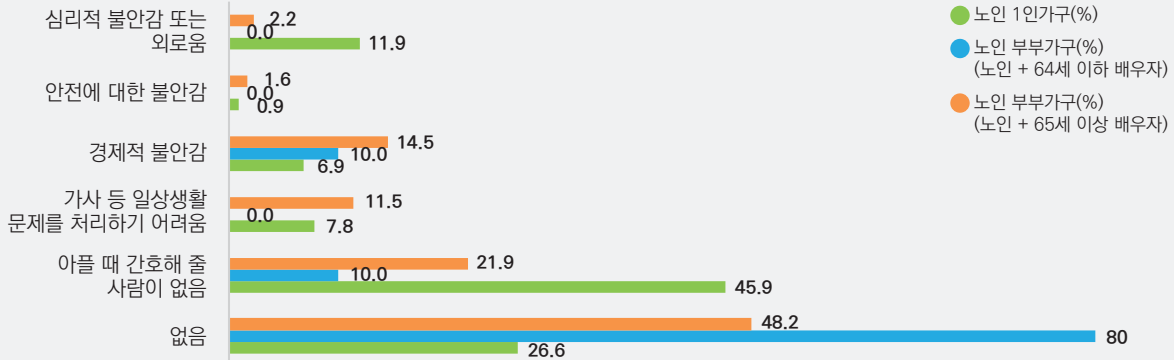
- 단독가구 형성이유로 노인 1인가구는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, 자녀가 결혼해서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노인과 64세 이하 배우자로 이루어진 노인 부부가구는 개인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,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순으로 나타남
- 노인과 65세 이상 배우자로 이루어진 노인 부부가구는 개인생활 또는 부부생활을 누리기 위해서,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기 싫어서 순으로 나타남



V

단독가구(1인가구/노인부부가구) 생활 시 어려운점

- 단독가구 생활 시 어려운점으로 노인 1인가구는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(45.9%), 없음(26.6%) 순으로 나타남
- 노인과 64세 이하 배우자로 이루어진 노인 부부가구는 없음이 80%로 가장 높게 나타남
- 노인과 65세 이상 배우자로 이루어진 노인 부부가구는 없음(48.2%), 아플 때 간호해 줄 사람이 없음(21.9%)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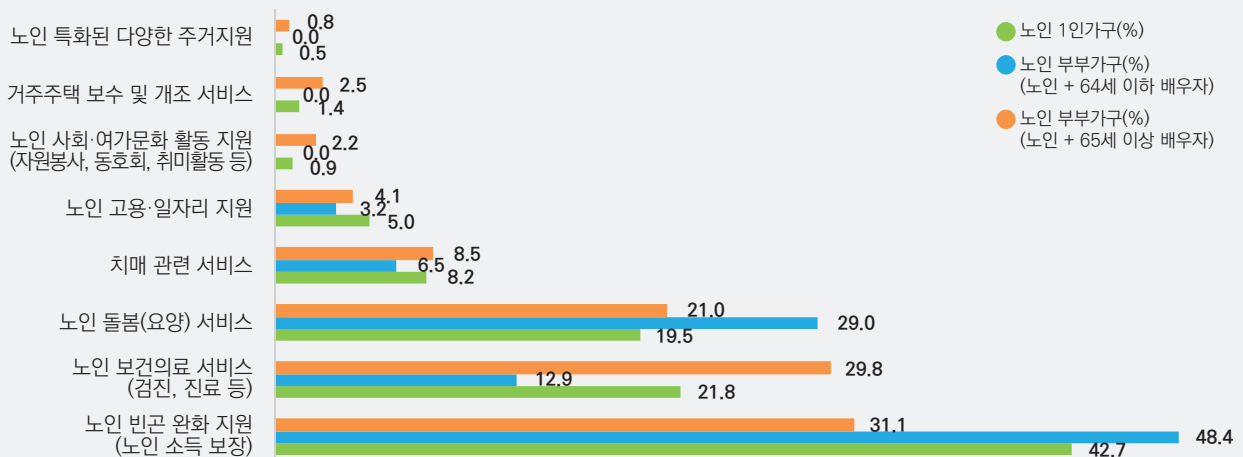


출처 「2023년 노인실태조사」의 경남 데이터를 재분석

VI

노인 복지 정책 우선 과제

- 노인 복지 정책에서 노인 1인 가구의 주요 우선 과제로 노인 빈곤 완화 지원(42.7%)과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(21.8%)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함
- 노인과 64세 이하 배우자로 구성된 노인 부부가구는 노인 빈곤 완화 지원(48.4%)과 노인 돌봄(요양) 서비스(29%) 순임
- 노인과 65세 이상 배우자로 구성된 노인 부부가구는 노인 빈곤 완화 지원(31.1%)과 노인 보건의료 서비스(29.8%)순임



출처 「2023년 노인실태조사」의 경남 데이터를 재분석

※ 본 자료의 내용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.